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6년 겨울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계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1쪽지 고등부	기초라틴어	1월 9일 개강 매주 월요일 (총6강), 저녁 7:00 ~ 9:00	강의	손홍국 (철학과 박사수료)
2쪽지 고등부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1월 11일 개강 매주 수요일 (총6강), 저녁 7:15 ~ 9:15	강의/토론	김성부 (철학과 박사수료)
3쪽지 고등부	정장입은 도둑들 -자본주의적 악당들	1월 13일 개강 매주 금요일(총6강) 저녁 7:20~9:20	강의/토론	박현진 (철학과 박사수료)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6년 12월 16일 ~
2017년 1월 13일
강의기간 : 2017년 1월 9일 ~ 2월 24일
수강료 : 쪽지 당 각 8만원
문의 : 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로 송부
- ② 신청확인 안내메일 확인
- ③ 신청확인 안내메일에 기재된 계좌로 강의료 입금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기초 라틴어

라틴어는 서구 중세 기독교 1000년간의 생활언어였고, 그래서 유럽의 종교, 문화, 철학, 역사, 예술, 과학 등의 많은 주요한 고전적 텍스트들은 이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라틴어의 영향력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서구 사회에 전승되어, 서구 대부분의 현대어는 그 뿌리를 이 라틴어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아시아에서 한문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는 라틴어 교재를 통한 간단한 문장의 독해와 기본문법의 공부를 통해 서구문화의 공동적 뿌리인 라틴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강의자 : 손홍국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강의 대상 : 고등학생

교재: 『Orbis Romanus』

강의 일자 : 2017년 1월 9일 ~ 2월 20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00분~9시 00분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1월 9일	『Orbis Romanus』 1강	강의
2	1월 16일	『Orbis Romanus』 2강	
3	1월 23일	『Orbis Romanus』 3강	
4	2월 6일	『Orbis Romanus』 4강	
5	2월 13일	『Orbis Romanus』 5강	
6	2월 20일	『Orbis Romanus』 6강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우리의 생각은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포괄적인 모든 사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는 논리에 의지한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연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두 생각은 경험적으로 인간의 당연한 사유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고의 방식은 각기 다른 국면에서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적 문제를 풀 때는 논리적 사고가 감정적인 생각보다 더 유용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유의 방식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학문의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해 보고,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유용하다고 보이는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의는 주로 참여자들의 토의와 발표 등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강의와 글쓰기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강의자 : 김성부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강의 대상 : 고등학생

강의 기간 : 2017년 1월 11일 ~ 2월 15일

강의 일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15분 ~ 9시 15분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강의방식
1	1월 11일	자신의 생각과 생각 표현하기	글쓰기, 발표
2	1월 18일	사적이고 공적인 우리의 생각 구분하기	강의, 토의
3	1월 25일	사적인 생각과 감정적 설득력	강의, 토의
4	2월 1일	공적인 생각과 논리적 설득력	강의, 토의
5	2월 8일	논리적 근거의 주장과 설득	글쓰기, 토의
6	2월 15일	합리적 토의와 논리적 근거	발표, 토의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다 17>

정장 입은 도둑들

- 자본주의적 악당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중요한 시대라 해도 돈을 버는 방식의 부당함까지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그만큼 대중의 비난과 분노 그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상 속 우리는 생각만큼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 제대로 된 비난과 분노를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비리로 세금 100억을 골격간 고위공무원과 흥기로 할머니를 위협해 만원을 뺏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 도둑 중 언제나 도둑이 더 큰 죄인이 됩니다. 사기보다는 폭력이 타인에 대한 더 큰 위해라고 여기면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떤 폭력도 없이 빼앗을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번 수업에서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 원인을 ‘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적 일상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크게 ① 부당한 돈벌이에 숨겨진 잔인함과 폭력성, ② 자본주의적 폭력 앞에 우리가 무감각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강의자 : 박현진 (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강의 대상 : 천박한 자본주의적 일상과 인간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누구나

강의 일자 : 2017년 1월 13일 ~ 2월 24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20분~9시 20분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1월 13일	금지된 공동체	강의/토론
2	1월 20일	세상을 지배하는 믿음, 자본주의	강의/토론
3	2월 3일	수용된 잔인함	강의/토론
4	2월 10일	악한 자본주의	강의/토론
5	2월 17일	평범한 악인	강의/토론
6	2월 24일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강의/토론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약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youthphilo@hanmail.net).